

양록인의 집

문종환/한국양록협회 홍보부장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김원대 회원(해창한의원장)이 회관 건립기금 1천만원을 쾌척해 그동안 침체분위기에 빠져있던 회관건립이 제2의 봄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원장이 회관건립 성금을 선뜻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41회 총회에 대의원으로 처음 참석, 임원진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후배들의 유급사태의 미안함과 회관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조그만한 힘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원장은 『언젠가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늦어졌다』며,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회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의협 회관건립 지연이 불만족스런 회무결과의 여파 때문이란 일부시각에 대해 김원장은 『누구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심없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일한다 해도 다소간의 오해가 있게 마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지적, 머잖아 오해로 인한 회관건립 지연이었다는 평가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원장은 특히 부산만해도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협 중앙회관은 대내적 위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의사 전체의 얼굴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볼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내용은 최근 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의신문」에 게재된 기사다. 한의사협회는 자체 회관건립을 위해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50억원의 기금을 모금중에 있다.

이 모금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빠른시일내에 회관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의사 한 분이 1천만원의 기금을 쾌척한 사실을 미담으로 실고 있다.

한의사 분들이야 돈도 잘 벌고 단합이 잘 되어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간 부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양록협회에서도 현재 회관건립은 꿈꾸지 못하지만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국양록 역사상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감히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회장이 하 현 집행부인 임원과 지회장들이 하나가 되어 과감히 떨치고 일어선 것이다.

지금이야 빛으로 마련했지만 양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어엿한 양록인의 빛있는 집으로 바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록인들의 의식과 단합된 힘이 우리 양록인의 집 하나쯤이야(?) 마련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열 사람이 밥 한술씩 보태면 한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뜻을 같이 하는 양록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 협회 사무실마련 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양록인의 호응도가 국내 양록인의 결속력을 저울질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양록협회 출범 22년만에 가장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협회에 보다 비중있는 힘을 실어주어 양록업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사무실 마련과 같은 거사적인 일에 양록인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를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를 시발로 우리 양록인들도 10년 이내에 양록회관을 자체적으로 건립 할 수 있다는 부푼 희망도 함께 가져보자.*